

□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30개월 내 최고가 기록

1. BusinessWeek(2011.02.07) 주요 내용

- 곡물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옥수수 가격(CBOT 기준)이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.
 - 3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은 3센트(0.4%) 상승한 부셸당 6.815달러로, 지난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임.
- 3월 인도분 밀 가격은 8.25센트(1%) 상승한 부셸당 8.62달러임.
 -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소요사태에도 불구하고, 2월 5일 밀 17만 톤과 2억 5,200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함.
 - 3월 인도분 콩 가격은 0.6% 상승한 부셸당 14.43달러
- USDA가 2월에 발표한 9월 수확기까지 옥수수 재고 전망치는 1억 2,540만 톤으로, 전월의 1억 2,700만 톤보다 하락함.
 - 바이오에탄올 생산업체와 중국에서의 수요 급증으로, 재고량 감소
 - 에탄올 혼합 허용 비율의 상향조정(10%→15%)도 영향을 미침.
 - 옥수수 재고량 급감이 전망됨에 따라, 선물가격이 급등세를 보임.
- 미 곡물위원회는 올해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1995년도의 430만 톤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 - 중국 정부가 국내 식품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어,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임.
 - 20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을 겪고 있는 중국 북부 5개성이 전체 밀 생산의 2/3을 차지하고 있어, 전세계 밀 수급에 차질 우려

2. 시사점

- 작년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산불·가뭄으로 인한 수출금지조치와 호주의 흉수에 이어, 올해 들어 중국의 겨울 가뭄과 호주 메뚜기떼로 인한 병충해까지 겹치면서, 생산 부진으로 전세계 곡물위기가 금년에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.
- 특히 주요 곡물인 밀, 콩, 옥수수의 국제가격 상승이 심각한 만큼,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재고를 확보하는 한편,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통해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.

* 오는 18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국제감시체제 창설 논의

- 글로벌 농산물시장에 대한 투기자본 유입 차단을 위해 각국 금융감독 당국이 연계하여 거래 정보 조사 방안, 농산물 거래 실태 파악을 통해 시세 조종 방지 대책 등 논의 (일본 닛케이신문 보도)